



광주시 '유·스케이' 전경. 금호터미널 소유로 금호산업 인수 기업이 주인이 된다.

금호산업 '1兆 인수전' 신세계 등 6곳 참여

우선매수권 금호아시아나 "원래 주인이 되었는데 문제 없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사운을 걸고 있는 금호산업 인수전에 대기업 신세계와 금호고속 대주주인 IBK펀드, 자베즈파트너스 등 사모투자펀드 4곳이 참여했다. 참여설이 꾸준하던 호반건설도 이들을 올리면서 총 6곳이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마감시한까지 인수 의향서(LOI)를 제출하지 못한 일부 대기업들이 이번 주말까지 시한 연장을 요청해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인수전 참여 기업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미 인수 준비를 마친 만큼, 원래 주인인 금호가 되겠다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14면〉

25일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인수의향서(LOI) 제출 마감일인 이날 6개 후보들이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 들었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대기업 신세계와 IBK투자증권-케이 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이하 IBK펀드), 자베즈파트너스, MBK파트너스, IMM 등 사모펀드 4곳, 중견 건설사 호반건설이다. 신세계 외에 롯데, CJ 등 애초 이번 매각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들은 막판까지 의향서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의향서 제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컨소시엄 형태의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참여 후보만 놓고 인수전 운곽을 가능하게는 힘들다. 추후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기업이 사모펀드 등과 손잡고 인수전에 뛰어 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부 대기업들이 이날 오후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인수 의향서(LOI) 제출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

해 산업은행은 연장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인수전 참여기업이 매입할 수 있는 지분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산업 위크아웃 과정에서 갑자기 출자 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지분 57.5%(1955만주)이다. 금호산업 인수전이 흥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각 가격은 8000억~1조원까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자금력을 갖춘 신세계가 단독으로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매각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아직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입찰 최고가격에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위치다. 자금만 확보되면 큰 어려움이 없다. '뜨거운' 인수 분위기에 비해 차분한 입장인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이미 '실탄'이 확보됐다고 보는 의견도 나온다.

금호아시아나에 정통한 관계자는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유력한 재무적 투자자나 전략적 투자자와 손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한 인사는 "그동안 채권단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고, 준비를 해 온 만큼, 되찾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순리대로 원래 주인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의 기본 자격 심사를 거쳐 이날 말 또는 다음날 초 입찰적격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입찰적격자를 상대로 예비 입찰을 할 계획이었으나 의향서 제출 투자자가 예비입찰을 벌일 만큼은 많지는 않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은행은 입찰적격자를 상대로 6주간의 예비 실사를 거쳐 본입찰 제안을 받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회의원, 인구보다 지역 대표성이 중요”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선관위 선거법 개정 권고안
호남 불이익...지역균형 고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구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광주일보 2월 25일 1면)에 대해 지역 대표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순 인구 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호남처럼 인구가 적은 권역은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장기적으로 권역별 역량이 약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선거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승자독식구조 해소'를 명분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 차원에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주승용 새정치연합 수석 최고위원은 "단순 인구기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호남은 그야말로 변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인구도 중요하지만 권역별 지역 대표성을 우선 인정, 지역적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핵심인 만큼 중앙선거위원회의 제안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는 만큼 전국시도당위원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1절엔 태극기 게양” 광주지방보훈청 직원들이 제96주년 3·1절을 앞두고 25일 오후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의 제안은 농촌과 도시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며 “특히 정치 현실을 감안해볼 때,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제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중앙선거위원회의 권역별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고 비례

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되겠지만 정치 현실상 지역구를 줄이기 보다는 현재의 비례대표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전당특별법 처리 조건

與, 영풍한 법안 처리 요구

여야는 2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 개정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새누리당이 처리에 대한 조건으로 다른 법안의 처리를 요구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아특별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이 갈피 잡기 힘든 주장을 하며 아특별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아특별 개정안과 관련, 여야는 전날 조율된 입장을 기반으로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갔으나 새누리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교론위 법안소위에서 아특별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한 후 입장을 뒤집더니 이번에는 광주시민들을 볼모로 경제살리기와 상관없는 어이없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중 FTA 가서명

車 중국시장 확대·농수산물 피해 최소화
광주시·전남도 대책 마련 나섰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25일 가서명했다. 한·중 양국은 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기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중 FTA로 인해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중국 시장 확대, 농수산물 및 가공제품의 중국 수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양측은 지난해 11월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약과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

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우선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광신대학교

-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여자신학원 (여전도사 과정) 모집
- 목회자 심리상담사 과정 모집
- 사모상담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3월 5일 개강

☎(062)605-1112, 1023

황영조·이봉주·김재룡
3·1 마라톤 50년
축하 메시지
▶18면

나르시스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생명력 헤라 시그니아 크림

고귀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의 상징 나르시스-그 절정의 생명력을 피부에 선사하는 안티에이징의 정수,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이 피부에서 피어나는 순간
거울 속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HERA

*유통업체에서나 이모크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료외부담) www.hera.co.kr